

“이번 봉사로 영·호남 대학생 교류의 의미가 될 것”

전북대 국제화사업단-창원대 캄보디아 파견 봉사활동 실시

전북대학교 CK-1 '국제개발협력 창의인재양성사업단(단장 송기도·이하 국제화사업단)과 창원대학교 CK-1 글로벌다문화사회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문경희·이하 다인사업단)은 공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하계 해외봉사단을 캄보디아로 파견했다.

해외봉사단은 학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 유발과 체험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자개발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

이번 해외봉사에는 국제화 사업단 18명(직원 2명, 학생 16명)과 다인사업단 29명(교수 2명, 직원 1명, 학생 26명) 등 총 47명이 9박10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씨엠티에 위치한 현지 마을의 환경개선 사업과 초등학생 대상 교육봉사를 실시한다.

또한 현지 대학인 프놈펜왕립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현지마을 섬의, 현지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나아가 프놈펜왕립대학교 학생 9명도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봉사단원에게는 현지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왕복항공권, 현지체재경비 일체를 지원하며 봉사활동



전북대 CK-1 '국제개발협력 창의인재양성사업단과 창원대학교 CK-1 글로벌다문화사회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공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하계 해외봉사단을 캄보디아로 파견했다.

기간 중 현지 문화탐방의 기회도 제공된다.

송기도 전북대 국제화사업단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단순 봉사의 의미를 넘어 전북대와 창원대가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영·호남 대학생 교류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현지 NGO와 대학, 마을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의

연대의식도 높여주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국제화사업단과 창원대 다인사업단은 2019년까지 매년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했으며 파견 지역 및 인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금암1동 사랑의울타리, 사랑의 찰밥 나눔행사 펼쳐

전주시 금암동 사랑의울타리에서는 3일 금암경로당에서 관내 독거노인 및 경로당 어르신 등 50여명을 모시고 '사랑의 찰밥 나눔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여름 무더위를 맞이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사랑의울타리 회원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찰밥과 과일 등을 대접해 드리고 다정하게 말벗도 해드리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랑의울타리 여귀옥 회장은 “금암1동 사랑의울타리에서 작지만 정성껏 준비한 찰밥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고 어르신들이 기운을 보충하여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 포토페스티벌 다문화가정 가족사진촬영 행사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도지회(지회장 이석규)는 2017 전북 포토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 가족사진 촬영행사를 지난 1일다문화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 장수를 의암공원에서 실시했다.

전라북도지회는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에서 우리 한국에 시집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의 가족사진을 촬영, 액자로 제작해서 증정하고 본국에도 사진을 발송할 수 있도록 인화해 무료로 증정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전라북도지회에서 특별히 장수군 사진연구회(회장 정연태)를 선정해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28가족(선정)을 전문 사진작가의 작품사진으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타지역 사진작가들과 다문화관계자들에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려대 '꿈꾸는 고래' 동아리, 어촌마을 환경정화활동 진행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꿈꾸는 고래' 동아리 대학생 약 30여명이 농활 및 농어촌 교류를 위해 심원면 하전마을을 방문했다고 3일 전했다. 대학생들은 하전마을을 방문하여 깨끗한 어촌마을을 환경 조성을 위해 해안가와 마을 구석구석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하전마을은 대학생들에게 갯벌드라이브, 조개캐기, 갯벌스포츠 등 전국 최고의 어촌체험휴양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체험을 하고 매년 교류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교류활동을 통해 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감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고창군 어촌체험마을이 어촌관광 1번지의 성공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 아프리카 학생에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여름방학을 맞아 아프리카 국적의 생명공학 및 동물생명공학 학부생들을 초청, 실험·실습 및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전북대는 지난 3월 교육부 직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추진하는 '2017 아프리카 대학생 초청연수' 사업의 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3일 오전 10시 진수담 바오로홀에서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4일까지 5주간 전공 관련 실습, 체험활동, 한국 역사·문화 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르완다, 우간다, 이집트, 케냐에서 온 생명공학 및 동물생명공학 학부생 20명은 전북대 동물생명공학과와의 전공 강의 및 실험 실습에 참여하고 전공 관련 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을 방문, 전문 지식을 배운다.

국립국제교육원 담당자 오리엔테이션, 전북대 유학 및 장학 안내, 동물생명공학과 학과 멘토와 만남, 전북대 아프리카 유학생과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어 수업,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660912 전주시 양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장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6-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치사 010-9845-935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338	익산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경찰, 교통신호등 정전대비 모의훈련 실시

전북경찰청은 오는 7월 5일 전주시 효자동 일원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약화 등에 따른 교통신호등 정전상황 발생에 대비해 위기 단계에 맞춘 교통관리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정전으로 인한 교통신호등 마비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것으로, 위기 단계별 조치사항에 맞춰 진행된다.

관심·주의단계에서 모니터링과 상황전파 등을 실시, 경계단계시 '가'급 주요교차로에 교통경찰을 신속 배치하고, 심각단계에서 지역경찰, 상설중대 등이 추가로 지원 배치된다.

경건 상황이 부여되면 경찰청4기를 비롯해 주요교차로에서 신호등 점등 후 수신호로 소통위주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속한 위기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모의훈련 결과를 토대로 위기단계별 조치사항을 보완한다. 또한 교통경찰의 명확한 임무 부여와 정확한 수신호 교육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 지난 달 11일 서울 남서부 일대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교통신호기 200여대가 20분간 마비돼 큰 교통혼란을 겪은바 있다. /이상민 기자

남원경찰서, 이륜차 사고 특별단속 기간 진행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 지난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진행하고 있다.

이륜차의 위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특히 배달업소 종업원에 대한 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며, 이륜차 안전운행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관내 이륜차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모미착용의 위험성이 높아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